

“들불처럼 일어난 MZ세대 고맙고 든든하다”

광주 탄핵 집회 사회자로 나선 해직교사 백금렬·배우 지정남씨

MZ에 대한 편견 사라지고 달라진 집회 문화에 아이돌 공부도 해 청년층 공동체 의식 뜨거워... 위기 극복 후 민주주의 더 발전할 것

“1020세대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탄핵집회를 보니 편견이 불과했네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광주지역 탄핵집회 사회자로 활동 중인 해직교사 백금렬(52)씨와 배우 지정남(49)씨가 “최근 탄핵집회를 보니 집회 참여자의 연령대가 어려지며 광주 지역 집회 문화 역시 달라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08년 광주MBC 국악 프로그램 ‘열씨구학당’ 진행자를 맡으며 만난 이들은 당시 광주형 규탄 촛불문화제부터 본격적으로 광주지역 각종 집회의 사회자를 맡기 시작했다. 이들은 ‘거리의 사회자’라 불릴 정도로 여러 집회·시위 현장에 참여했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에스파가 명하노니 내란수괴 윤석열을 박살내자”는 구호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집회 사회자인 이들이 무대에서 ‘블랙핑크’, ‘엔시티’, ‘아이브’, ‘스트레이키즈’ 등 각종 아이돌

름을 부르자 아이돌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호응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260만회를 넘겼고, 3만여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백씨는 “광장에 모인 참석자 80%가 1020 청소년 이더라”며 “청소년과 소통하기 위해 현장에서 응원하는 아이들을 물어봤고, 쪽지에 적어 그 이름을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돌과 MZ세대 문화에 대해 전혀 모르는 백씨가 더듬더듬 아이돌 그룹명을 외치고 “더보이즈는 남자들만 모였겠네요”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에 현장에 모인 청소년은 환호했다.

광주지역 공립 중학교 교사였던 백씨는 옛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해직됐다.

백씨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도 서로 농담하며 지냈다. 그런 분위기가 집회 사회 불 때도 나타난 것 같다”며 “청소년들이 집회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어울어질 수 있도록 집에 가서는 아이돌 그룹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공부했다. 그룹마다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에서 사회를 맡은 지정남(왼쪽)씨와 백금렬씨가 지난 8일 탄핵집회 무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응원봉이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 아이들을 보고 후대전화만 쳐다보고 뉴스는 보지 않는, 자기 밖에 모르고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

‘세상 큰일 났다’고 한탄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 공동체에 위기가 오니 아이들이 들 불처럼 일어나더라. 든든하고 고맙다”고 덧붙였다.

‘지정남의 오월 1인극 한생곳’ 등 다양한 공연, 방송 활동으로 오월 광주의 이야기를 전해온 배우 지정남 역시 “최근의 집회 분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도 완전히 다르다”고 웃어보였다.

지씨는 “청년층이 주도하면서 훨씬 밝고 재기발랄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이런 분위기에 기성세대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엄숙한 시기임에도 덩달아 힘이 난다”고 말했다.

5·18 민주광장에서 로제의 ‘아파트’를 흥얼거리는 기성세대와, 민중가요 ‘광주 출정가’를 따라부르는 젊은 세대를 바라봤다는 지씨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1020과 기성세대가 함께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지씨는 특히 “광주의 청년들은 나고 자라며 5·18을 배웠고, 느껴왔다. 평소 지나다니는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에서 선배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스러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총이 등장했을 때 누가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아는 모습이었다. 청년들도 기성세대도 ‘무임승차 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남대에서도 윤석열 퇴진 촉구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켈기대회에서 교수회, 총학생회, 총동맹회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창원서 서울서... ‘탄핵 주먹밥’ 줄이는 후원금

오월어머니집에 기부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에서 참가자에게 오월을 상징하는 ‘주먹밥’ 제공을 위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5·18 당시 시민을 위해 어머니들이 손수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주던 장면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전국 시민이 사비를 털어 뒷받침을 해 주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오월어머니집은 최근 전국의 시민들로부터 ‘탄핵 집회에서 나눠줄 탄핵 주먹밥’을 만드는 데

써 달라’는 취지의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의 한 시민은 최근 10만원의 오월어머니집에 기부했다. 이 시민은 “지금까지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복원군 소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계엄을 겪어 보니 5·18과 광주 시민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그간의 오해에 오월어머니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 기부를 하게 됐다”는 뜻을 오월어머니집에 전했다.

같은 이유로 한 서울 시민이 20만원을 기부했으며,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50만원)과 윤용

상 전 CBS 광주전남본부장(100만원) 등도 기부금을 내냈다. 오월어머니집 회원인 한 오월 어머니도 힘을 보태고 싶다며 50만원을 내놓았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5월 주먹밥 정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준 시민들의 후원이 선순환이 돼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다”며 “비록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5·18정신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이 생긴다”고 밝혔다.

오월어머니집은 오는 14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광주시민 총 켈기대회’ 집회 현장에서 오월 어머니들과 함께 ‘탄핵 주먹밥 나눔’을 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ijou@kwangju.co.kr

탄핵 시위에 ‘딱’...응원봉 중고거래 인기

‘당근마켓’ 등 판매글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탄핵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탄핵봉’ 이 인기를 끌고 있다.

탄핵봉은 아이돌 콘서트에서 응원을 위해 사용되는 응원봉(사진)을 탄핵집회에 이용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 집회에서 사용했던 촛불이 탄핵봉으로 바뀌면서 응원봉에 대한 중고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최근 일주일간 연예인 응원봉 판매글이 광주 지역에 만 30여개가 넘게 올라왔다.

탄핵 정국 이전에는 한 달 4-5건이던 응원봉 판매글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판매 게시글 대부분이 ‘거래완료’ 또는 ‘예약중’ 표시가 돼 있었고 “집회 때 가져가서라고 싸게 양도한다”, “토요일 집회 현장에서 직거래 하자”는 등의 게시글이 적혀있었다.

응원봉 판매 금액은 5000원에서 4만원까지 다양하며 아이돌 가수부터 트로트 가수까지 다양했다.

게시글에는 탄핵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를 희망한다는 댓글도 이어졌다. 탄핵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판매금액보다 적은 액수나 기프티콘을 제시하며 대어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탄핵 집회에서 사용한다면 무료 나눔하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실제 탄핵집회 현장에서 아이돌 팬덤 별로 응원봉의 색이 다양해서 집회가 더욱 형형색색 반짝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무드 등을 들고 집회 현장에서 나서는 이들도 많아 다양한 조명 등 판매글도 늘고 있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김서연(여·21·북구 운암동)씨는 “몇 달전 중고플랫폼에 올려놓아도 팔리지 않던 아이돌 가수 아이콘 응원봉 판매글을 보고 최근 ‘구매를 원한다’는 채팅이 왔다”면서 “촛불대신 응원봉을 사용하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았다는 게 느껴진다. 콘서트 가 아니면 사용할 일이 없었던 아이돌 응원봉을 활용할 방법이 생겨 순기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